

이달의 초점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보건정책의 전환

한국 청년의 기후불안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채수미 |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부담: 조현병과 치매를 중심으로

| 최지희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보건정책 현황과 시사점

| 김혜윤 |

저탄소 보건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 하미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청년의 기후불안 특성과 정책적 함의¹⁾

Understanding Climate Anxiety among Korean Yout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직면할 장기적 위험이 커지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노출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기후불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범부처 계획을 통해 국가는 기후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더 심화된 기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당사자이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소통하며, 학술적·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건강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수혜자이며, 참여자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불안을 포함한 기후 위기 대응은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경고했던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덧 현

실로 다가왔다.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IPCC는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수세기에서 수천 년 동안 피할 수 없고, 해수면은 수천 년 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미래세대에게 불평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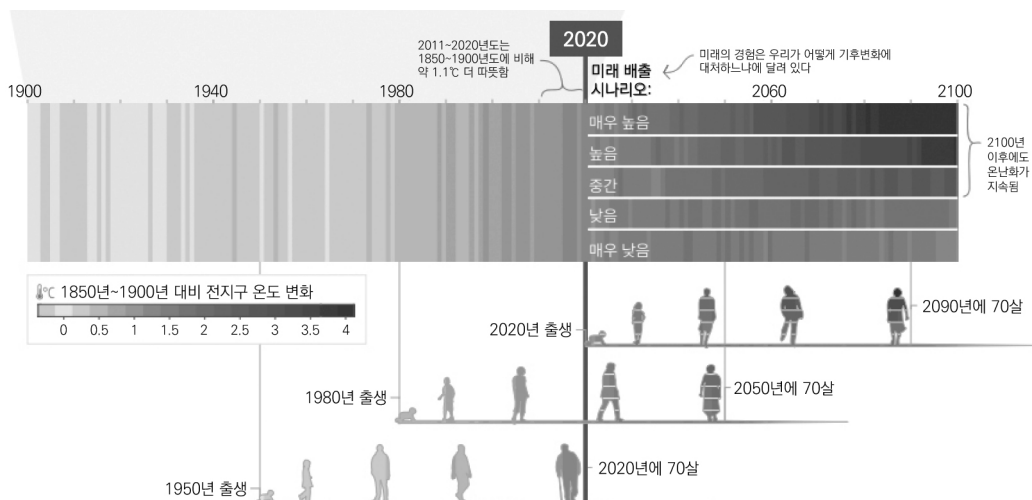
1) 이 글은 채수미, 김혜윤, 곽윤경, 정수경. (2025). 미래세대 기후불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중재 전략(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게 작용하는 장기적 위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영향은 현재 관측 상황보다 심화되고, 기후와 비기후적 위험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높은 신뢰도 수준을 갖는다.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적응 방안은 제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게 되며, 손실과 피해가 증가하고 인간과 자연의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질병, 생산성 손실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적응 대책이 지구 평균 온도 1.5℃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된다(기상청, 2023). 이에 기후변화가 건강 위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적응과 완화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건강 영향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세대 간 기후위기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1950년 출생자와 2020년 출생자가 70년의 생존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는 지구의 온도 변화이다.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즉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비하는가에 따라 기온 상승폭은 다르지만, 미래의 심각한 고온 현상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세대 간 불평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기상청, 2023).

2022년 IPCC의 제6차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되어 왔던 기후불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위험이 되려면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동안 노출의 형태를 직간접적인 노출로 정의해 왔으나, 대리노출(vicarious exposure)이라

[그림 1]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현재 및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지구의 온도



출처: "기후변화 2023 종합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기상청, 2023, p. 7, 그림 SPM.1.

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대리노출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타인의 경험을 관찰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 정보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기후불안이라고 한다(Cissé et al., 2022).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가 2023년 처음 보고된 바 있다. 한국형 기후불안 척도(K-CCAS)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나 노인의 특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후불안 수준이 높아 20대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척도가 아닌 단일 문항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 걱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과 걱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수미 외, 2023).²⁾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은 평가 방식에 따라 반대로 나타나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기후불안에 대한 많은 연구는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니 좋은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년의 기후불안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면담 조사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 연령인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모집했다. 기후위기 관심 집단은 청년 기후활동 단체에 홍보하거나, 관련 분야 전공 교수의 협조를 구하여 전공자 중에서 면담 희망자를 모집했다. 기후위기 비관심 집단은 관련 분야의 활동, 학업,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연구자의 동료, 지인을 통해 모집을 시작해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확장했다. 총 35명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된 조사 내용에 대해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집을 중단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8명, 여성 25명이었고, 연령대는 19~24세 10명, 25~29명 15명, 30~34명 10명이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집단은 기후활동가 14명, 관련 분야 대학원생 6명으로 총 20명이었으며, 기후위기 비관심 집단은 15명이었다. 면담 조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한 기후불안 점수 및 경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었다. 기후위기 관심 집단 4명, 기후위기 비관심 집단 4명의 남성 참여자 면담 과정에서, 면담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

2) 채수미 외. (2023).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전국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성, 연령, 지역 인구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표집을 적용해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기후불안척도(K-CCAS: Climate Change Anxiety Scale for Korean Adults)를 활용해 기후불안 실태를 조사하였다.

드러진다고 판단되지 않아 남성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지 않았다.

면담 조사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 3인이 직접 수행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제2025-031호).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가. 무력감, 회의감을 동반하는 미래의 두려움

면담 참여자 중 다수는 10년 이상 후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기후위기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기후위기는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결혼, 출산, 직업 등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어릴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일부러 비옷을 입고 가서 첨벙첨벙 놀았는데… 재밌으니까… (침수 때문에) 지인의 친구가 죽었고, 회사에서도 비 많이 온다고 하면 빨리 귀가하라고 하고요. 이제 비가 무서운 거구나.”

“아이를 낳는 게 맞나 고민이 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후위기로 범벅이 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서.”

“기후 때문에 죽고, 사고사로 죽는 게 아니라 자연사하고 싶다.”

나. 많은 사회현상 중 하나, 불가항력적인 것

지금 청년은 급변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회현상이 ‘위기’로 설명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청년에게 기후위기가 미래의 중대한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었다. 기후위기가 무감각한 사회현상 중 그저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도 다수 확인되었다. 미래의 삶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우선적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뉘었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국가, 전문가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사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기후위기 문제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기후불안에 대한 인식

가. 고조되는 위기의 현상

기후활동가 또는 환경 분야 전공자 중에는 자신이 기후불안을 느끼거나, 또는 주변에서 기후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매체를 통해 듣기도 했지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토론, 정보 교류, 학교 수업을 통해 기후불안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후불안 자체를 다루지 않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행사에서 기후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고 하였다.

기후불안이 청년,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후불안을 설명하였다. 반면 기후불안에 대한 개념이나 기후불안을 느끼게 될 때 순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나. 생소한 말

주로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들 사이에서 기후불안을 들어 본 적이 없었고, 이번 인터뷰 참여를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면담 중에 이루어진 기후불안 측정 결과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경우에도 기후불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5 기후불안의 현황

인터뷰가 중간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참여자들은 K-CCAS(Climatic Change Anxiety Scale for Korean Adults)를 통해 자신의 기후불안 수준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안, 걱정,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 등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가 국외에서 8개 가장 보고되었는데, 그중 CCAS는 한국어로 번안되어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채수미 외, 2025). K-CCAS는 각각 5점 척도로 답할 수 있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별 평균으로는 최대 5점, 문항 전체 합계로는 최대 65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CCAS는 심각성을 분류하는 기준 점수가 개발되지 않아 불안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만 가능한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국외 연구에서는 문항별 평균 2점 내외로 보고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 성인의 평균 점수는 1.90으로 보고된 바 있다(채수미 외, 2023). 즉 척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점수가 결코 낮은 수준의 기후불안을 의미하지 않는다. 면담 중간에 자가 채점하여 참여자의 기후불안 수준은 문항 전체 합계로만 확인하였다.

한편 채수미 외(2023)의 연구에서 K-CCAS를 활용해 측정한 한국의 기후불안 수준을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청년세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전체(19~64세)

평균이 1.90점이었고, 20대가 2.02점, 30대가 1.99점이었다. 13개 문항에 대한 총점으로 산출할 경우 전체 대상자가 24.7점이었고, 20대가 26.26점, 30대가 25.87점이었다. 면담 참여자는 한국 청년을 대표하는 무작위 추출된 표본이 아니므로 기후 불안의 높고 낮음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구분하여 주요한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가. 높은 수준: 고통스럽지만 무뎠진 두려움

면담 참여자 사이에서 30점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40점을 넘는 경우도 한 명 있었다. 높은 수준의 그룹은 면담 참여자 중 일부로, 모두 기후활동가이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 또는 국제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경험도 지속하고 있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면담 중 기후위기 문제와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감정만 앞세우지 않을 만큼 무뎠지는 모습도 보였다.

“(기후위기 행사에서) 여러 명이 같이 말을 하다가 제가 엄청 울었어요. … (다른 행사에서) 좌장을 맡아서 가운데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되게 울컥해요. 저는 이 단어라든지 상황을 생각하면 해결을 못 할 것 같거든요. … 저도 곧 기성세대로 넘어가는데, 마음이 조금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 비교적 높은 수준: 나도 모르게 스며든 기후불안

이 그룹은 27~30점 사이로, 앞의 그룹과 마찬가지로 기후활동가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었다. 기후활동가 중에서 이 점수 이하인 경우는 한 명뿐이었다. 가정환경, 청소년기 학교 교육 또는 관련 활동 참여, 홍수 피해에 대한 직간접 경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등이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현재 관련 분야의 공부·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미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담 질문 중 현재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전체 참여자 중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밝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기후불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서 모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후불안과 정신건강 상태의 전후 관계는 면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기후불안이 높은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고한 경우

가 많이 확인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기후위기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었다.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즉 기후불안과 정신건강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고, 인식과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상황을 더 잘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후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식한 것은 이번 이(이번 면담 참여) 처음이에요. ...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잠들기 전에 누워서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집이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다. 낮은 수준: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의 문제

이번 면담 조사에서 2023년 조사에서 확인됐던 평균 수준 이하의 기후불안을 보인 경우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직장인, 학생이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해 감정의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기후 대응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행동과 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평소에 기후불안에 대해 몰랐던 경우라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기후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변에 불안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 매우 낮은 수준: 상상의 감정

이 그룹은 기후불안 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후불안을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이다. ‘매우 낮은 수준’의 그룹은 주로 20점 이하이기는 하지만, 20점 이하가 모두 이러한 특성을 갖지는 않는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참여자는 없었지만, 기후위기가 내 삶에 중대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기후위기에 상당히 집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공감하기 어려워하였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싶을 것 같은데.”

“미래에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을 뭔가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굳이 왜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쓰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6 기후불안의 기능

기후불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기후불안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왔다. 국내에서도 기후불안이 높은 미래세대에서조차 기후불안과 환경친화적 행동의 상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채수미 외, 2024). 개념적으

로는 적절한 기후불안은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지만, 심각한 기후불안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순기능의 역량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번 면담에서는 기후불안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측면에서 기후불안 수준이 높은 일부의 참여자에게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참여자의 면담 결과로는 결론짓기 어려웠다. 이에 면담 조사에서는 기후불안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 경우 기후불안의 기능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가. 그래도 나의 작은 역할이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높은 수준의 기후불안이 나타난 참여자는 모두 기후환경과 관련된 활동, 학업, 직업을 갖고 있었다. 미래의 기후위기가 두렵기도 하고,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지 무력감을 느끼는 청년들이었다. 그 수준이 심각할 때 기후위기 문제와 거리 두기를 했던 경우도 있다. 하지만 면담 참여자 중에는 외면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은 없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후불안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후)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한 번 피크를 찍고 내려오니까 약간 초월의 경지에 왔다고 해야 할까요? …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것 말

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1~2년 정도는 (기후불안에) 되게 압도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희망을 찾았던 것 같아요.”

“개인이 실천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얘기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목표를 세워서 …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해 나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절망감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 기성세대와 국가, 대기업, 정치에 대한 불신

‘그래도 나의 작은 역할이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성세대와 국가, 대기업, 정치에 대한 불신’은 기후불안 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정책과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국가, 대기업, 정치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는 연금, 고령화 대책 등 미래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 배 불리는 데 다 쓰고, 책임

은 다 우리에게 떠남긴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 분노 때문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7 기후불안 대응을 위한 청년의 제안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불안 대응은 단순히 불안한 감정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후불안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을 포괄한다. 다음 내용은 기후불안 극복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이다. 그런데 참여자들 중에는 기후위기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후위기(불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의 소통과 정책 제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가. 기후불안 중점 지원

기후불안을 느낄 때 고립되어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기후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해 주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불안을 이해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상담 인력이 배치되길 바랐다.

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정책과 정보

폭염, 홍수 등 재난 발생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기후위기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적응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너무 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당장의 폭염을 막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적응 정책이라고.”

다.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긍정적 메시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위주의 정보는 관심보다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 해결 방안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때이다.

“(책, 논문)에 희망이 들어가 있으면 저도 희망을 느끼면서 잘 실천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책을 덮을 때가 꽤 있어요.”

“해결책이 뭔지,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 정책이 새로 나왔더라, 뭔가 지금 합의가 됐다더라 이런 내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라. 기후위기 대응 문화 조성

보상 없는 개인적 노력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자신의 환경친화적 생각과 행동이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다. 개인의 노력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는 의지가 약해지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닥칠 때 기후위기 문제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모든 정책에 범분야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임팩트가 확산되는 거 ... 정말 딱 기후변화 자체에 예산을 엄청 쏟는 것보다는 모든 정책상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마. 기후위기 공론화(소통)

기후위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발표된 정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또 기후위기가 걱정되더라도 이것을 말하거나 이것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사실 이 인터뷰 제안 받았을 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는 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바. 청년친화적 문화와 연계한 정책

유행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성향을 고려해 청년친화적인 소통과 정책을 개발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사. 기후위기 교육 과정

기후위기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거나 추진되지 않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식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기후 활동이나 관련된 전공을 하는 면담 참여자들은 기후환경에 관심이 높았다.

8 나가며

최근 발표된 국가 계획을 통해 국가는 기후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무기력감 등 정신건강 위험 증가’가 새로운 과제(리스크)로 포함됐다(관계부처합동, 2025).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후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6).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더 심화된 기후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당사자이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소통하며 학술적·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건강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수혜자이며 참여자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불안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은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청년의 기후불안 특성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불안에 대한 인식이 청년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점이다. IPCC 보고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후불안이 언급되어 기후불안을 고조되는 위기의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기후불안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기후불안이 높은 경우에도 기후불안이라는 말과 뜻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집단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기후불안을 모든 미래세대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기후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후불안 수준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후불안을 잘 대처하고, 타인의 기후불안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후불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둘째, 기후불안의 수준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므로 유형별 특성에 따라 기후정책에 대한 소통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면담 조사에서는 K-CCAS의 합계 점수가 약 30점 이상일 때 ‘높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는 35명의 면담 조사자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절대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집단의 기후불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고 감정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 집단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이나 학습은 주도적·적극적이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은 27~30점 사이로 기후활동가는 대부분 이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직간접 경험이 있거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담 조사 내용만으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또는 과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밝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낮은 수준’은 2023년 20~30대 평균(24~25점) 이하인 경우이다. 기후위기에 대해 감정의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후불안을 공감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를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인식하기도 하고,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은 기후불안을 상상의 감정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자신의 기후불안 점수도 낮고 타인의 기후불안을 공감하기도 어려워했다.

셋째, 청년들은 기후불안이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면담 참여자 중에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문제를 외면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는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쓰고 행동했다. 어쩌면 긍정

적 기능을 발휘할 힘을 가진 사람들만 면담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나의 작은 역할이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성세대와 국가, 대기업, 정치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기후위기 정책은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불안의 긍정적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이 부정적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인다. 圖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5).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26).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기상청. (2023). **기후변화 2023 종합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 채수미, 김혜윤, 이수빈, 신지영, 백주하, 김태현, 전진아. (2023).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김혜윤, 정수경, 우경숙. (2024).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김혜윤, 곽윤경, 정수경. (2025). **미래세대 기후 불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중재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최지희, 백주하, 이해우, 우경숙, 전진아, 윤강재, 배정은. (2025).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 분석 및 평가도구 개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issé, G., McLeman, R., Adams, H., Aldunce, P., Bowen, K., Campbell-Lendrum, D.,

- Clayton, S., Ebi, K. L., Hess, J., Huang, C., Liu, Q., McGregor, G., Semenza, J. C., & Tirado, M. C. (2022). Health, wellbe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communities. In H.-O. Pörtner, D. C. Roberts, M. Tignor, E. 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 B. Rama (Ed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p. 1041–11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derstanding Climate Anxiety among Korean Yout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e, Sum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climate crisis continues to intensify, placing future generations at greater risk of its long-term impacts, climate anxiety—the psychological distress arising from sustained exposure to inform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and its anticipated consequences—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among young people. Drawing on interviews with young adult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features characteristic of climate anxiety and considers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address the issue of climate anxiety through a cross-ministerial plan. Relative to middle-aged and older citizens, young people, who will bear the brunt of the intensifying climate crisis, are active agents capable of communicating about climate change and contributing intellectual and policy-oriented expertise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Their significanc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health policies facilitating adaptiv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therefore lies in their dual role as both beneficiaries of such policies and participants in their realization. It follows that future governmental initiativ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including measures directed at climate anxiety—ought to proceed from a well-founded understanding of younger generations.